오물분수와 천국폭포

(마15:1~20)

1. 그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2.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3.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4.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5.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7.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8.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10.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11.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오물분수와 천국폭포>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물분수와 천국폭포’

‘누워서 침 뱉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헤치려 하는데 도리어 그 행동이 나에게로 돌아와 내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에, 그게 바로 누워서 침 뱉기라는 말의 뜻입니다.

또, 차를 타고 가다가 담뱃재를 툭툭 밖으로 텁니다, 근데 뒤로 들어와요, 뒤에 문을 열고 있을 때 뒷사람에게로 담뱃재가 들어올 경우가 있어요.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꼭 누구를 헤치려고 하지 않더라도 기독교의 진리 안에서 사람을 볼 때, 사람은 애초에 타고나서 성장해서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의 특징은 오물분수입니다.
꼭 누구를 헤치려 했을 때 그 헤치려는 것이 나에게로 돌아와 손해를 입히는 그 경우가 아니라도, 누워서 침 뱉기가 아니라도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 오물분수로 살아가게 되어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 입으로 뿜어내는 게 다 그게 오물이고 그래서 이 인격전체가 총체적으로 하나의 오물분수로 움직이며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친구와 장난하고 놀다가 제가 화가 나서 아이를 쫓아가자 그 친구아이가 도망가다가, 막~ 배추밭 무밭 사이에서 뛰어다니고 도망가다가, 옛날에는 그 채소에 거름을 인분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너무 내가 화를 내고, 그 아이는 한 살 저보다 어린 친구였는데 내가 화내면서 쫓아온 모습의 그 기세가 너무 등등해 갖고 무서운 나머지 그 인분 웅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난리가 한번 났었죠.
집으로 데리고 와서 펌프우물가에서 그 똥을 다 씻고 난리가 났었는데…
여러분! 이건 겉에서 묻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느냐?
유대의 장로들이 제자들이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손으로 빵을 뜯어 먹으니까…
그리고 장로의 전통을 어겼다고 율법에 나온 건 아닙니다, 율법에 근간을 두고 여러 가지 생활의 세칙을 만들어내는 가운데, 정결법의 연장선상에서 성결법의 연장선상에서 음식을 먹을 때 꼭 손을 씻고 먹자는 전통을 만들었는데, 그걸 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너무나, 너무나 소박하시고 너무나 솔직하시고 너무나 맞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입으로 들어갔다 뒤로 나온다, 그러므로 그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더럽다, 깨끗하다'라고 말할 때, 포인트를 이 바리새인들이 놓친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대체 사람을 더럽다, 깨끗하다 할 때 어느 지점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냐? 라는 포인트를 놓친 거라는 거예요.
이 몸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음식 때문에 더러워질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더러워지는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음에서부터 더러움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 그런 속담이 있죠? 여러분.
'뭐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속담을 하나 다시 만들자면 이런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에 손을 씻고 밥을 먹지 않아서 부정하다, 정결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똥 담고 있는 개가 샤워하기'라는 속담을 만들 수 있을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뭐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라는 정도가 아니라, 뭐가 묻은 게 아니라 그 뭐를 담고 있는 개가 샤워 한다고 깨끗해지겠느냐 라는 것이에요.
뭐 주머니에요, 뭐 주머니. 그 뭐 주머니가 샤워한다고 나아질 게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핵심 요지에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살펴봐야 될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생각,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오물분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 오물분수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부분에 이사야서의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쭉~ 읽지 않은 부분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설명하여 주소서' 어떤 비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뒤로 나오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더럽다 깨끗하다'라고 말할 때 그 포인트를 터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음식은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이 깨끗하다 불결하다의 포인트를 이 육체의 차원에 두고 있습니다.
이건 뭐 깨끗하다 정결하다 뿐만이 아니겠죠, 물론 훌륭하다 난 사람이다 못난 사람이다 하는 모든 게 다 이 육체차원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포인트가 틀려버린 겁니다.
하여간 이 상황에서, 마음의 이야기를 거론하시는데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다, 도대체 하나님에게서 멀다 그러면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고 어디에 가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리 간 그곳이 바로 더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마음이 더러워졌고 마음이 더러운 그 상태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게 다 그 사람을 추악하고 더럽게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표방하는 모든 뼈대가 되는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삼층 구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요.
맨 위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늘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승천하신 주님이 지금도 계신 그 하늘이 있습니다. 지금도 겹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밑에 공중이 있고 거기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은 이 몸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슴을 칩니다마는 가슴을 해부학적으로 열어본다고 마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마음은 공중이라는 차원에 있습니다, 하늘밑에 공중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바로 육체차원이에요, 이 땅의 차원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다'라는 것은, 이 삼층 구조 외에는 다른 구조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 볼 때, 마음이 멀다는 것은 위로 하나님께 보좌가 있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쪽으로 몸이 있는 육체가 있는 쪽으로 내려와 머물고 있다는 것을 마음이 멀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음이 아래쪽에 관계의 파이프를 들이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육체와 연결이 되어있고, 육체와 매여 있기 때문에 육체와 아래쪽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마음은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것의 분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육체와 연결되어있고 육체와 매여 있으면서, 아래쪽의 육체가 뭐가 되느냐?
모~든 더러움을 발산해내는 유전 같은 거예요.
유전 뭔지 알죠? 원유가 묻혀있는 땅, 그게 유전입니다.

아라비아의 유전보다 더 무한대로 더러움이 용솟음쳐 오를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버린 거라는 겁니다.
아래의 육체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마음을 통과해서 나오는 모든 기운들이 다 더러운 것으로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게 되어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정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건 어저께 우리 말씀 드렸잖아요?
삶의 현장은 사각의 링이다, 삶의 현장은 언제나 우리에게 싸워야 될 것처럼 여겨지는 과제를 제시하고, 변수가 등장하고, 책임이 주어진다.
무엇인가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각의 링에서의 싸움과 같다.
근데 이 사각의 링에서 그것을 붙들고 싸우다가는 세상 바다에 빠져버린다, 그러므로 제3의 길이 어디 있느냐? 링을 떠나라, 삶의 현장에서 주어지는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도 하지 말고, 실패해서 좌절하지도 말고 아예 떠나라.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제4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려 오셔서 내 삶의 현장에서 활동하십니다.
이렇게 되려면 마음이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 육체의 차원인 삶의 현장을 마음이 떠나서 위로 갈 때에, 마음이 위로 갔습니까?
위로 갔으니까 천국이 폭포처럼 떨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몸이 있는 이 현장으로 천국이 폭포처럼 떨어져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정하다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국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집사람이 쓸고 닦고, 쓸고 닦고 하는 거를 보더니 그 중국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사느냐는 거예요.
자기네는 그냥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다는 겁니다.
'저게 꼭 깨끗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좀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마음만 편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겨울철이 되니까 햇볕이 길게 들어오죠?
햇볕이 길게 들어오니까 그 동안 보이지 않던 먼지가 뽀얗게 보이는 곳이 많아요, 그러나 편안하게 생각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본문에서 말하는 정결과 부정함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마음만 편하게 가지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고 천국폭포 됨이 중단 돼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활동하시려는 제4의 길, 은총의 길이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실?
마음이 중간공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육체에 매임을 통하여 육체로부터 더러움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못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을 보게 되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사실로.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못 보면 안 되지요.
왜~ 육체에서부터 마음을 통과해서 오물이 분수가 되어 나타날까요?
왜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청결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육체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되지요.
육체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금기시 돼야 되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과 육체가 연결만 되면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마음과 육체가 연결되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인상 지우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마음과 육체의 연합이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우린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살고 그 사실을 못 보고 사는 맹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맹인으로.
그리고 맹인의 입장에서 몸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마음이 몸에 매여 있는 이 상태가 얼마나 더러움의 분수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못 본 채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황당한 시츄에이션인가? 마음이 몸에 매여 있는 게.

여러분, 레드카펫의 드레스 있지요 여배우들이 입는 드레스.
영화제 같은데 시상식에서 영화 뭐 시상식이나 영화제 같은데서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여자 배우들이 예쁜 드레스를 입고 오는 것이, 허리우드도 그렇고 이젠 우리나라도 허리우드를 배워가지고, 사실상 뉴스에 나오는 이슈거리는, 시상식에서 누가 여우주연상을 받았느냐 보다도 더 큰 이슈거리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 레드카펫이 이렇게 연예계 안에서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1930년대부터 오스카상은 있었습니다마는, 1980년대까지 85년 이전까지는 그냥 영화사에 소속된 스타일리스트들이 여배우들이 입는 옷을 준비해 줬습니다.
심지어 1930년대 오스카상은 그냥 하루전날 옷 가게, 아동복 옷 가게에 가서 옷을 사 입고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도 있어요.

이러던 것이 1985년에, 여러분 그 조로지오 아르마니라고 하는 이태리 디자이너 있지요? 조로지오 아르마니 그 사람이 허리우드 전담부서를 회사 내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제에 참석하는 모든 여배우에게 협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부터 레드카펫의 드레스가 영화제의 시상식 자체보다도 더 각광을 받는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던 여배우들이 갑자기 센세이셔널 한, 예를 들어 뭐 에마뉴엘 웅가로가 만든 파격적인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그러면 갑자기 몇 년 동안 잠잠하던, 동면을 취하고 있던 곰같이 지내던 여배우들이 갑자기 뜨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연예인 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여배우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압니까?
싱건지 씻어서 밥 싸먹는 것, 김치찌개, 김치 이런 거 좋아해요.

자~ 이제 말도 안 되는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에마뉴엘 웅가로의 드레스를 입고 2007년에 김소연 씨가 나타났어요, 레드카펫에.
한동안 활동을 안 하던 사람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돼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김소연 씨가 김장김치를 되게 좋아해요, 그것도 전라도 식으로 젓갈을 세게 넣고, 마늘과 파를 잔뜩 넣은 남도식 김장김치를 이파리 이파리 다 찢어 가지고, 허리 아래 드레스 부분에다 한 이파리 한 이파리 김장김치 이파리를 실로 꿰매서 주렁주렁 매달았다고 합시다, 말도 안돼요, 말도 안 되는데 기억은 나요, 앞으로 두고두고.
그 레드카펫 드레스에 김장김치를 묻혀서 영화제 시상식 안으로 들어갔다 그럴 때, 올킬이에요, 올킬.
영화제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냄새며 그 분위기며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한 사람이 레드카펫의 드레스에 김장김치 이파리를 주렁주렁 꿰매서 달고 들어갔을 때, 영화제 시상식이 초토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냄새 때문에라도.
마음이 몸에 매여 있는 만남, 마음과 몸의 결합의 만남은 레드카펫 드레스와 김장김치의 만남보다, 더~ 이상하고, 더~ 헤비하고, 더~ 굉장한 겁니다.
근데 이걸 못 보는 맹인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고, 얼마나 괴상한 일이고, 얼마나 기이한 일이라는 것을, 얼마나 어색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못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만든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전략이고 눈을 멀게 만든 겁니다.

한 사람에게서 오물이 분수처럼 나오게 되는 거.
여러분, 자! 레드카펫에서 김장김치를 담았다고 해서 김장김치가 무엇이 잘못입니까?
김치 자체가 뭐가 죄에요?
식탁 위의 그릇에 담겨서 올라가면 김치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육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레드카펫 같은 마음이 하나님 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황금카펫, 하늘나라의 황금카펫을 밟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우리의 마음이, 따로 놔두었으면 김치처럼 유용할 육체와 연합이 되면서 거기서 온갖 더러움이 다 발생하고 마는 겁니다, 온갖 더러움이.
그리고 이 더러움의 양은 무한대에요.

히틀러가 육체와 연결이 되면서 유대인과 혈육상의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게르만 민족이 최우수 민족인데 유대인이 자기가 선민이라 그러고 민족적인 자존심에 가득차서 살고 있습니다.
꼴 보기가 싫어요, 600만을 죽입니다, 유럽을 피바다로 만들어 버려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유럽을 피바다로 만드는 추악함이 나온 근원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히틀러의 마음이, 히틀러의 그 몇 년 살지도 못할 몸에 붙었기 때문에 유럽 전체가 피바다로 변한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이 추악함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실패가 없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느껴지지 않고 우리 마음이 먹은 대로 여건이 다 허락했다 그러면 헤롯 왕가와 같은 상황이 안 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건이 허락하지 않고, 이곳은 잘돼도 저쪽 부분을 보면 형편없이 되기 때문에, 그 형편없는 부분을 마음에 끌어안고 있느라고 제동이 걸려서 우리의 악함의 분수가 약하게 나오니까 이 정도이지요, 약하게 나오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오물분수를 깨뜨리는 거예요, 오물분수를.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하나님은 위에 계시는데 멀어질 수 있는 길은 아래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래의 끝이 육체에요.
그 마음이 육체에 매여 있어 멀어진 상태를 죽여 버리시는 겁니다, 그 상태를.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해서 모든 사람을 천국폭포가 되게끔 하시려는 것이 예수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몸이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생각합니까?

포인트를 잘못 찍은 이유가 뭡니까? 맹인이 됐기 때문에…

왜 맹인이 됐습니까?

몸이 마음과 결합돼요, 마음이 몸에 내려가서 붙어 버렸어요, 몸에 내려가서.

그래서 포인트가 몸이 깨끗해야 깨끗한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몸이 있는 이 차원에서 훌륭해야 훌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몸이 있는 이 차원에서 사람들이 존경해야 성공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잘못된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마음이 몸으로 내려가서, 육체에 내려가서 육체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상황이 이렇게 고민스럽고 힘들고 버거운 것이에요.

포인트를 잘못 집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실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물폭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 동안에 오물폭포로 살면서, 나 스스로 나를 더럽혔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이제 앞으로는 천국폭포로 살게 하려고 오신 것이에요.

근데 오물폭포 때문에 더러워진 모든 죄를 씻어버린 뒤에 다시 오물폭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유지하고 산다 그러면,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대로 육체가 놓여 져 있는 이 현실, 이 삶의 현장, 이 링에서 이 세상바다에 허우적거리고 빠져있으면서, 마음이 몸에 매였기 때문에 뿜어져 나오는 더러움을 분수로 만들어서, 나 스스로 나를 망가뜨리고 더럽히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상태에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주님의 십자가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의 끝없이 반복되는 오물폭포로의 회귀를 중단하고, 오물분수로서의 회귀를 중단하고 천국폭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노라는 우리의 결단의 표현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들은 대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아서, 내 마음이 어떡하든지 몸에 매여 있는 상태로부터 십자가를 통해 해방되고 하나님께 매이게 해달라고 소망어린 기도를 드립시다.

위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성령님을 통하여 위로 올라가서 내 몸이 가는 곳마다 천국폭포로서 그 현장에 임할 수 있는 정말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워서 침 뱉기는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오물의 분수로 살아갑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아래쪽으로 육체에 매여 있는 우리 마음이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 위에 계신 그 곳을 향하여 올라가게 하셔서 이 몸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늘의 뜻이 내려오고 하늘의 은총이 쏟아져 내려와 표현되어지는 천국폭포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